

# 박사랑 “머지않아 코트 복귀 ... 팬 기대에 꼭 부응”

## 서채원 “181cm 큰 키 활용 블로킹 다듬고 있어요”



박사랑(왼쪽)과 서채원. <AI페퍼스 제공>

**AI페퍼스 대구여고 출신 신인들**

**세터 박사랑**  
 “제일 먼저 뽑혀 제일 늦게 데뷔  
 통증 많이 줄어 꾸준히 재활  
 머릿속에 멋진 플레이 구상”

**센터 서채원**  
 “서브에이스로 프로 첫 득점  
 자신있고 재미있는 배구로  
 팀에 도움되는 플레이 하고파”

최근 AI페퍼스 '신인'들의 기세가 무섭다. 12일 인삼공사전에서는 박은서가 17득점을 뽑아내며 활약했고, 김세연도 매 경기 리베로로 출전해 문슬기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고 있다.

박사랑과 서채원도 그렇다. 아직 코트에 자주 얼굴을 비추진 못했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각 1순위·3순위로 입단한 만큼 가장 기대를 모으는 신인들이다.

이들은 정운주(흥국생명)와 함께 '대구여고 트리오'로 불린다. 세터 박사랑, 센터 서채원, 레프트 정운주로 구성된 이들의 인연은 대구일중에서 시작해 대구여고로 이어졌다. 대구여고 트리오는 드래프트 이후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에서도 맹활약하며 대구여고에게 첫 전국체전 우승을 안겨 주기도 했다.

박사랑은 178cm 장신 세터로 시즌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다. 하지만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지난 10월 14일 인대 파열로 발목 수술을 받아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재활에는 3~4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는 “제일 먼저 뽑혀 제일 늦게 데뷔할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지금은 통증도 많이 줄었고, 재활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조금씩 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

박사랑은 하루하루가 아쉽다. 그는 “같이 AI페퍼스에 온 다른 친구들도 모두 코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밖에서 런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초조한 마음도 있다. 시합 뛰고 있는 친구들

이 부럽다”고 말했다.

아직 재활 중이지만 훈련장에는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진 발에 체중을 많이 싣고 중심을 잡거나 상·하체 웨이트, 빠르게 걷기 등 재활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AI페퍼스는 이현·구술 2명의 세터만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이현에게 세터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박사랑은 코트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자신만의 플레이를 그리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센터를 많이 쓰지 못하고 레프트 위주 플레이를 했지만, 복귀 이후에는 공격수들을 끌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사랑은 “공격을 끌고루 분산시키고, 엘리자벳의 공격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채원 또한 고교 시절 레프트·세터를 오가며 활약했던 선수다. 서채원은 “지금까지 출전했던 경기들마다 너무 많이 긴장했다. 매 경기 긴장 풀고, 공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분위기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채원은 3경기 5세트에 잠깐씩 교체 출전했지만, 아직 돋보이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다만 지난 11월에는 인삼공사를 상대하며 서브에이스를 올리며 프로 데뷔 첫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걱정과 불안이 컸던 상황이었다. 서브 포인트 내고 나니 그제서야 긴장도 풀리고 자신감도 조금 올라가더라”며 “많이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웃었다.

지금은 센터 포지션을 맡아 속공과 블로킹을 집중 훈련하고 있으며, 특히 181cm 신장을 살린 블로킹을 다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오랜 시간 배구를 함께 해 왔던 박사랑에 대한 마음도 애틋하다. 서채원은 “박사랑에게 재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다 회복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줬다”며 “저도 부족한 게 많으니, 복귀하면 다시 개인 연습하면서 재밌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랑은 “천천히 해도 된다”며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이 있어서 회복 기간이 덜 슬펐다”며 “복귀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채원도 “자신감 있는 모습, 재미있게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득점은 못 내더라도 플레이할 때 팀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플레이 하고 싶다”며 “팬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코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켈리파잉(Q) 시리즈 수석합격으로 내년 LPGA투어 진출을 확정 한 안나린. /연합뉴스

## 안나린 1위·최혜진 8위 내년 LPGA 투어 진출

안나린(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잉(Q) 시리즈를 수석으로 합격해 내년 LPGA투어 진출을 확정했다.

최혜진(22)도 공동 8위라는 높은 순위로 LPGA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안나린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이랜드 오크스 골프장(파72)에서 열린 Q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8라운드 합계 33언더파 541타로 1위를 차지했다.

5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안나린은 막판 3개홀에서 버디 2개를 잡아내며 전날까지 1위를 달린 폴린 루상-부사르(프랑스)를 1타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했다. 루상-부사르는 이날 이븐파 72타에 그쳤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지난해 2등을 거뒀고, 올해는 우승은 없었지만 상급랭킹 9위에 오르는 등 정상급 경기력을 과시했던 안나린은 내년 LPGA투어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안나린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 되고 지금까지 TV로만 보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투어 통산 10승에 대상 3연패를 달성한 최혜진은 비록 수석은 놓쳤지만 공동 8위(17언더파 557타)에 올라 LPGA투어 신인왕을 겨냥할 실력을 입증했다.

최혜진은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쳤다. 최혜진은 “아직 믿기지 않고, 설렌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예은(19)은 공동 12위(13언더파 561타)로 LPGA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었다.

Q시리즈 45위까지는 내년 LPGA투어 카드를 받지만, 20위 이내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투어를 뛸 수 있다.

김민지와 박금강은 아쉽게 공동 45위 밖으로 밀려 2부투어 시드에 만족해야 했다.

아타야 티피쿰(태국)은 3위(26언더파 548타)로 Q시리즈를 통과해 내년 신인왕 경쟁에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세계랭킹 14위 후루에 아야카(일본)도 7위(18언더파 556타)로 거뜬하게 Q시리즈를 통과했고 2019년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시부노 히나코(일본)도 공동20위로 미뒀던 LPGA투어 진출을 이뤘다.

/연합뉴스

# 손흥민,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

## 갤럽 조사, 2위 김연경·3위 안산 손흥민 5년 연속 최고 선수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9·토트넘)이 한국갤럽이 조사·발표하는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스포츠 선수로 임지를 굳혔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5~28일 전국 만 13세 이상 1천700명을 대상으로 올 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를 묻은 결과 손흥민이 72.8%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현재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선정한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에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한 손흥민은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내리 1위를 차지하며 김연아, 박지성이 있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위는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의 주역 김연경(29.4%)이다.

김연경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팀원들을 독려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리더십으로 4강 신화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김연경



안산

3위는 한국 최초 하계올림픽 금메달 3관왕에 오른 안산(10.4%)이다.

우리나라 양궁은 안산을 앞세워 여자 단체전에서 9회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안산은 대회 초기 ‘악플 테러’에 의연한 대처로 주목받았고, 금메달 수여식 후 “여름이었다”라는 짧은 소감 역시 화제가 됐다.

4위는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는 류현진(9.1%)이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의 스포츠 선수 1위, 부상에서 복귀한 2017년부터 5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5위는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양궁의 김제덕(4.1%), 6위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SSG 랜더스로 국내 복귀한 추신수(3.4%), 7위는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3.1%, 레알 마요르카)이 차지했다.

8위는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8%), 9위는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김희진(1.6%)이 이름을 올렸다.

여자 골프의 고진영과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고 EPL 무대를 누비는 황희찬이 공동 10위(1.4%)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 ‘최동원상’ 두산 미란다 상금 중 1000만원 기부

‘최동원상’ 수상자인 두산 베어스 투수 아리엘 미란다가 상금 중 1000만원을 기부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3일 “제8회 최동원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미란다 선수가 ‘부산은 행이 후원하는 상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의미 있는 일에 써달라”는 미란다 선수의 요청에 따라 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알칸타라가 상금 절반을 기부하면서 500만원을 유소년 야구 지원금으로 썼고, 남은 500만원은 그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당시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보여준 울산 남부소방서에 전달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올해도 미란다가 기부한 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유소년 야구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남은 500만원은 초·중·고·대학교에서 활동 중인 4명의 학생 선수와 특목 야구단 선수 등 5명에게 ‘미란다 장학금’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